

격려사

예로부터 우리 불가에는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 하여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의 가풍을 이어왔습니다. 그 가풍을 이어 근대 고승 용성스님은 반농반선(半農半禪)의 수행을 강조하셨고, 학명스님은 주경야선(晝耕夜禪)의 종풍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종단의 가풍은 수행자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과거 농경사회에서 불교는 농지를 경작하며 노동을 하는 것을 수행의 일환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산업사회 속에서 불교가 백장청규의 가풍을 잇는 일과 수행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종단을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정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으로 이번에 생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물론 여러 선사께서 물과 관련한 법문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아함경에서 전하기를 '좋은 물은 시원하고 맛이 있으며, 경쾌하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깨끗하며, 마실 때에도 목이 메지 않고, 목에 걸리지도 않으며, 마시고 나면 온몸이 편안해지는데 이런 물을 마시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에는 맑고 깨끗하며(澄淨), 시원하고(淸冷), 달고 맛있으며(甘美), 부드럽고(輕軟), 윤택하며(潤澤), 편안하고(安和), 갈증을 없애주며(除饑渴), 모든 기관을 길러내는(長養諸根) 여덟 가지 공덕을 가진 팔공덕수(八功德水)로 가득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팔공덕수는 청정하고 향기로워 마치 감로수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고승의 한 분이신 경봉스님께서는 물이 만물을 살려주고, 갈 길을 찾아 쉬지 않고 나아가며, 어려운 굶이를 만날수록 더욱 힘을 내는 등 우주 만물에게 이익을 주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공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물을 사부대중과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단순히 조계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선도하는 동시에 작은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조계종의 이름으로 출시되는 생수 '산은 산이요, 물은 감(甘)이로다'는 이와 같이 온 국민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원력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재로 승려노후복지를 돕고자 하는 또 다른 원력을 담고 있으니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자리아타의 작은 방편을 찾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수사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커다란 원력을 담은 일이며, 미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불법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석수&푸리스 최광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종단 내외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원만성취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성원과 힘이 한데 모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554(2010)년 1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정념